

복합문화시설 진산미술관 포천에 設立

신북면 삼성당리 외북천변 2009년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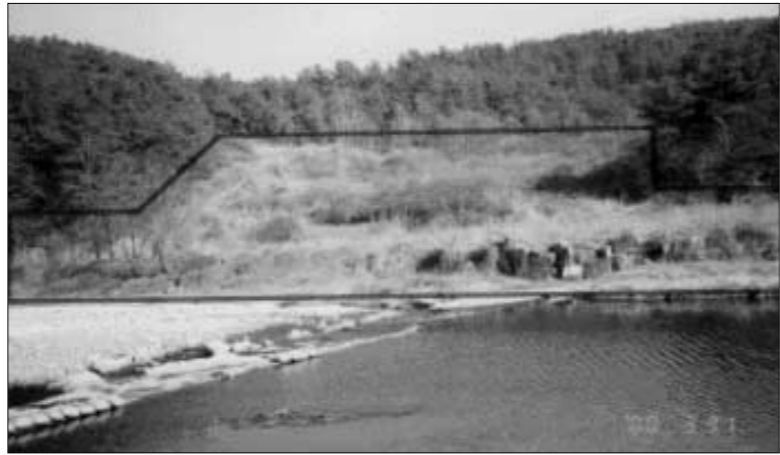
포천에 전문 미술관이 들어선다. 진산미술관(대표 이경진)은 복합 문화시설로 아도니스 폴크장과 아도니스 랜드 인근 신북면 삼성당리 외북천변의 송림속에 2005년부터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09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난 10월15일 경기도로부터 사립미술관 설립승인을 받았다.

4천여평의 부지에 4개 테마의 야외 조각 공원과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 320평 규모로 연구동, 작업동, 실내전시관 등 3개동을 건축해 약 500여점의 회화 및 조각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각종 공연을 위한 야외음악당과 가마시 설을 갖춘 도예공방, 미술관 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폐돈사를 개조해 집단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어 젊

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입주시켜 다양한 작가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고, 생산적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작가, 평론가, 기획자, 대중이 함께 하는 생동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경진 진산미술관 대표는 "앞으로 기획전, 개인전, 워크숍, 학술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예술 작품을 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도록 함은 물론 해외 유력 작가와 비평가, 큐레이터, 화상 등을 초빙해 창작과 전시가 동시에 펼쳐지는 미술 센터로 입지를 굳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북면 삼성당리 외북천변에 들어서게 될 진산미술관 부지.

한편, 진산미술관 공사 기간 중 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영화아파트에 '돼지꿈' 조형물 설치한다

5일,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서 결정돼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는 송우택지개발지구 4블록 영화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5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해 성원되었다. 심의위원으로는 이정열 포천시부시장, 이경진 진산미술관장, 임승오 흥익대교수, 정현숙 대전대교수, 김기준 경북대학교수, 문희숙 경북대학교수, 장금태 포천시청 건축과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된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포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 설치되는 작품으로, 건축면적이 10,000㎡이상이인 공동주택의 1,000분의 1이상에 설치되는 미술품이다.

심의위원들은 작품의 예술성과 건물 및 주변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해 심의에 착수, 작품을 구성하는 좌대(座臺)의 단조로움 개선과 상징물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심사 집계 평균 89.8점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는 집계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을 승인하는 규정에 의한 결정이다.

송우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될 미술작품은 전미영작가의 작품명 '돼지꿈'으로 가로 1.2m, 세로 1.6m, 너비 5m로 설치되며, 스테인리스와 동, 브론즈를 재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품은 5천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되며,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품 故 구분주씨의 원안을 부인인



송우택지개발지구 4블록 영화아파트에 들어서게 될 조형물 설치조감도.

전미영씨가 남편의 뜻을 이어 작업을 하는 작품으로 완성이 기대되는 작품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0) 올챙이국수**

도성고개를 지나 명지산 중턱의 논밭 마을에 도착하니 산속 인자라 벌써 해는 서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우리 일행을 반겨줍니다. "어서 오슈! 김씨!" "별고 없었슈?" 어른들과 그 아저씨가 인사를 나누더니 내게로 눈을 향하십니다. "앤 누구요?" "우리 큰 애라우..." "어, 그 녀석? 그렇게도 조그맣더니 많이 자랐네... 몇 살이나?" "열한 살이에요. 4학년 돼요." "어서 오너라. 아버지 따라 왔구나? 잘 왔다" 그곳은 온 천지가 다 옥수수로 된 동네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신기합니다. 마루 위 시렁에도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으며, 대추 나무 위와 개복숭아 나무 위에도 온통 옥수수가 집채만치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옥수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 구경한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우리는 주인아저씨를 따라 뒷뜰에 있는 감자 저장소로 뺄뻬 뺄뻬하고 뒤뚱뒤뚱한 굴참나무 사다리를 타고 땅속 깊이 저장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두웠는데 주인아저씨께서 성냥을 그어 등잔불을 켜는 순간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나는 절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가마니 분량의 감자가 저장되어 있었었습니다. "이걸 고평지 재배라 한단다." "높은 곳에서 심으면 벌레도 안 먹고 병충해도 별로 없지..." 아버지와 그 아저씨가 번갈아가며 가르쳐 주십니다. 어른들은 준용 파블랙 배낭에 감자를 담고, 나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약수하는 그림이 그려진, 밀가루 포대로 만든 자루에 감자를 담았습니다. "거, 담배 있으면 한 대 주시구라." 감자 값을 치르고 나니 주인아저씨는 담배가 없다하시며 아버지께 담배를 한 대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권리가 없으시다 하시며 봉담배 짚지를 꺼내어 찜지 옆간에 있는 일력 종이 자른 것을 한 장 주시며 봉담배를 조금 건네십니다. "여기는 말이예요, 가게에 가려면 삼십 리는 족히 내려가야 하나 담배가 제일 귀해요. 그래서 정 피고 싶으면 가랑이이나 헝겊 마른 것을 말아 피워 보기도 하지만 어디 풀냄새가 나서 피우겠습니까?" 하시며 혼자 얘기하고 혼자 자문자답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영재 아버지는 그저 슬며시 웃음 뿐이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우리에게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앤, 이게 무슨 국수 줄 아니? 국수도 아닌 것이 무슨 목을 부셔 놓은 것 같은 것을 가르치

며 아저머니께서 물으십니다. "아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의아해 물으니 아저머니가 장난 섞인 웃음을 띠우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챙이국수란다." "네? 올챙이국수요? 그럼 올챙이로 만들어요?" 내가 놀라 반문하였습니다. "그래, 이것 좀 보라. 올챙이처럼 생겼지 않니? 어서 먹어봐! 맛있단다." 나는 기겁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안 먹어요. 올챙이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영재 아버지가께서는 웃음을 띠며 올챙이국수에 조선간장을 치시며 숟가락으로 맛나게 잡수십니다. "봐라, 애빈 올챙이를 좋아해서 맛있게 먹지 않니?" 아버지가 맛있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거, 사람하구 심겁기는..." 영재 아버지가 말을 끊으며 말씀하십니다. "앤, 이걸 올챙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것이란다.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챙이국수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하하하" 영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어쩔지 마음이 찝찝하였지만 이내 목 종류를 좋아하는 나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내게 놀리시느라 올

챙이로 만든 국수라 하셨지요. 그러나 아저머니는 웃으시며 옥수수로 만든 국수이니 괜찮다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미끌미끌하여 마치 올챙이 새끼처럼 생긴 것이 조선간장을 뿌려 먹으니 기분이 감식이라 그런지 찹찹하며 면서도 미끈하게 목으로 잘 넘어갑니다. "어서 가져, 어두워질라." 수저를 놓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서두르십니다. 우리 일행은 씨감자를 사 짊어지고 큰 산을 넘어 밤 아홉시가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봄에 사온 씨감자를 심어 수확한 감자가 정말 대견스러웠고, 그 지켜온 감자밭과 감자 음식들도 내가 사온 씨감자로 수확하였다는 자부심에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습다. (계속)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경북대학 음악과 정기연주회

경북대학음악과(학과장 박장순)는 지난4일 오후 7시 4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시민을 위한 제13회 경북대학 음악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경제적인 불황과 사회적 갈등으로 삶이 피곤한 음악애호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정기연주회는 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피아노와 성악, 경북대학 콘서트 밴드, 경북콘서트 피아노로 구성되었는데, 피아노 2중주는 김예슬(2년), 박선혜(2년)가 Slavic Dances Op.46, No.1, No.8를 김진아(2년), 박성하(2년)가 Scaramouche Suite 1st, 3rd Mov를 각각 연주를 했다. 또 성악 2중창은 홍지아(2년), 서민정(2년), 문혜진(2년 피아노)이 Ah! guarda, sollela(Opera 'Cosi fan tutte' 중에서)를 성악 6중창은 홍주대(2년), 이영욱(2년), 김한신(2년), 하요한(1년), 박하나(2년), 신은혜(2년), 강주현(1년 피아노)이 Riconoci in questo amplesso(Opera 'Le nozze di Figaro' 중에서)를 불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한 4일 개최된 경북대학음악과 정기연주회에서 홍지아(2년), 서민정(2년)이 Ah! guarda, sollela(Opera 'Cosi fan tutte' 중에서)를 열창하고 있다.



지한 4일 개최된 경북대학음악과 정기연주회에서 홍지아(2년), 서민정(2년)이 Ah! guarda, sollela(Opera 'Cosi fan tutte' 중에서)를 열창하고 있다.



5일 제2회 회호대회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동해 지회장이 대회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회호대회

금상 가삼면 이성우씨 차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지회장 이동해)는 지난 5일 지회 대강당에서 '제2회 회호대회'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서예인구의 보급과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관내 각 지회 60세 이상의 노인 10명이 참가했으며, 이동해 지회장, 이정열 포천시 부시장, 김진동 포천예총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종식 전후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금상 이성우

(74, 가삼면) ▶은상 임영호(68, 관인면) ▶동상 김광수(69, 신음동) 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임상자에겐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이 수여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농협상품권 및 고급볼펜이 제공됐다. 이동해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전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 못해 아쉽다"며 "참가자들의 좋은 글이 예술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11회 학원연합회 연합연주회 열어

포천시 학원연합회 음악분과회(회장 유연남)는 3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1회 학원연합회 연합연주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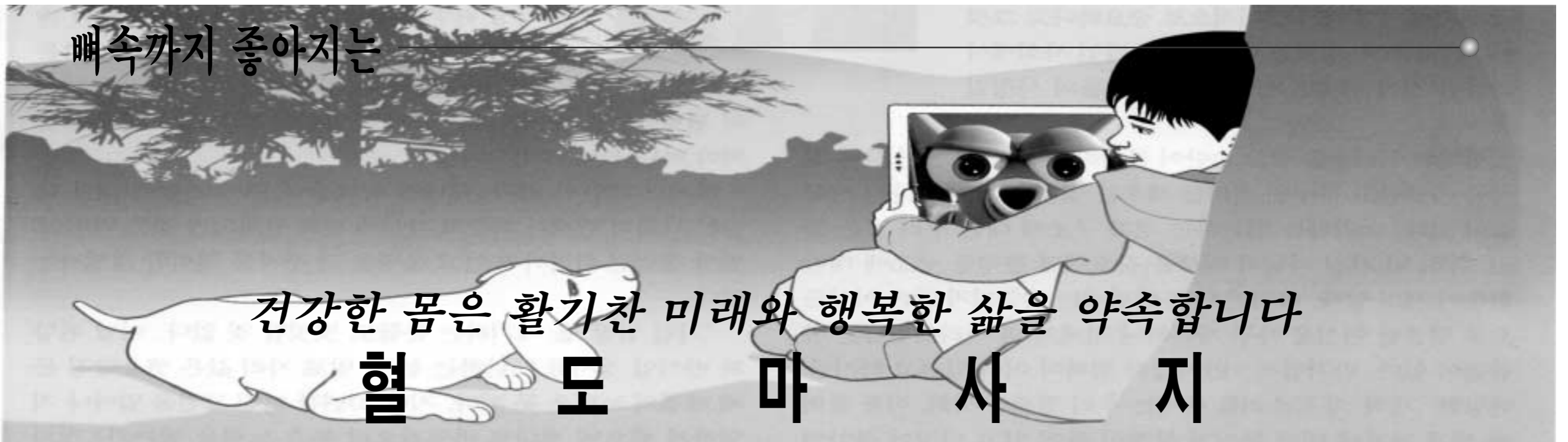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이 후원하고, 포천시 학원연합회(회장 이종진)가 주최한 이번 연주회는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유연남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번 대회는 학원연합회의 음악분과의 발전과 친목, 음악인의 자변확대를 위해 개최했다"며 "연주회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 한구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악분과 22개 학원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준비병기로 연주순서를 정하고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연주 등 각자 학원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뽐냈다.

빠속까지 좋아지는



건강한 몸은 활기찬 미래와 행복한 삶을 약속합니다

혈도마사지

- ◆ 목, 머리, 팔, 다리, 어깨, 허리, 복부, 손발, 얼굴, 가슴, 정력, 항문, 골반 전문
- ◆ 중풍, 오십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다리관절염, 복부비만 전문

영업시간 : 월~일 6:00~24:00 요금 : 1시간 3만원

Tel : 031)542-7196/019-9727-7196 /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 101동 203호